

# 소상공인 살리는 '나주사랑펀드'

### 전력거래소·지차체 등 10억원...42명 소상공인 지원 '완판' 이용자 연간 2000만원 이자 감면·90명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거래소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협력해 만든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 10억원을 지역 소상공인 42명이 지원받게 됐다.

4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선보인 'KPX 나주사랑펀드' (한국전력거래소 동반성장협력대출)를 연말까지 나주지역 소상공인 42명이 이용했다.

나주사랑펀드는 전력거래소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나주시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을 추천·보증하는 상생기금이다.

전력거래소는 자금운용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연간 6000만원 가량 마련했다. 연간·월별 자금수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정확도를 높여 단기자금 비중을 줄이고 고수의 금융상품 비중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 전력거래소 측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금리 1.65%를 감면하고 0.4~0.9% 추가금리 감면까지 지원하며 대출 업무를 맡고 상품 홍보를 함께 진행했다.

'나주사랑펀드' 이용자 수는 연간 20~30명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3개월 여 동안 42명이 이용하면서 '완판'됐다. 이들은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대출 받으며 사업목돈을 마련했다. 전력거래소는 펀드가 유지되는 동안 매년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에 문턱을 낮추고 대출이자를 감면하면서 지역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에 발간한 '혁신도시 우수 상생협력 사례'에 소개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 펀드 이용자는 연간 총 2000만원의 대출이자를 감면 받고 개인당 약 50%의 금융 비용을 절감했다. 이를 통해 음식·숙박업 등 약 9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나주사랑펀드의 1호 대출을 받게 된 주인공은 전력거래소 등 공공기관이 위치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역전할머니맥주'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인철 대표였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해 9월 'KPX 나주사랑펀드' 1호 대출자를 배출한 이후 42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자금 10억원을 지원했다. <전력거래소 제공>

다. 1호 대출자 선정은 나주시, 전남신보의 사전 면담을 거쳐 결정됐다. 심사단은 지원자의 사업추진 의지와 미래사업 청사진 등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정 대표는 "나주사랑펀드 대출을 통해 금융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며 "나주사랑펀드의 최초 수혜자로서 현재의 사업을 잘 운영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나주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주사랑펀드를 통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사명도 함께 달여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나주사랑펀드 외에도 태양광 나눔 복지사업, 계절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효율형 주택보수 등에 나주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촌 마을회관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나서

### 농어촌공사 7일까지 접수 예산 3억1000만원 예상

농촌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공생활시설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에너지 자립모델 실증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단계적 의무화 정책에 따라 농촌 공공생활시설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개선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예산은 3억1000만원(국비 50%-지방비 30%-자부담 20%)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대상에는 2개 지구가 선정된다. 2개 지구의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 공사는 단열·창호·기밀·환기·실내마무리 공사 등이 포함되며 심야전기 보일러와 재생에너지 설비 교체 공사가 진행된다.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태양광패널, 태양열패널, 지열 등이 이용된다.

이 공사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을 1++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사업부지와 주민동의가 확보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사업이 농촌 주민들의 공공생활시설을 쾌적하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최기영 과기부 장관, 인터넷진흥원 방문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사를 방문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인터넷진흥원은 최 장관이 나주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 20여 명과 감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인터넷진흥원을 찾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데이터(DATA) 3법' 개정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 분야에 대한 후속 준비를 점검했다.

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인터넷주소자원관리센터를 돌아보며 인공지능 기반 침해 사고 대응 체계와 운영현황, 계획 등

도 확인했다.

최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전문기관"이라며 "사이버보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축적된 사이버보안 데이터와 사례들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며 정보보호 산업에 AI 기술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9년 7월 설립된 인터넷진흥원은 총 1988억원 규모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증강현실 안전시스템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나선다

### 한전KDN 'K-몬스터' 개발

한전KDN이 겨울철 화재가 잦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증강현실(AR) 안전시스템을 개발했다.

4일 한전KDN은 새내벤처 'K-몬스터'가 지난해 개발한 송전분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증강현실 솔루션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이 새내벤처기업은 증강현실 특화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 부전동 전통시장 등에 구현했다.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한전KDN의 '화재예방 관리기술시스템'은 점포가 밀집하게 붙어있는 전통 시장의 복잡한 전기설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KDN 새내벤처 대표인 이일환 차장은 "지자체·소방서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전통시장 근로자와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PS, UAE본부 개소...원전 정비 컨트롤 타워



한전KPS(사장 김범년·왼쪽 6번째)는 지난 달 UAE본부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한전KPS 제공>

### 기술교류 가교 역할 기대

한전KPS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본부 문을 열었다.

한전KPS는 UAE 바라카 현지에서 UAE 본부 개소식을 갖고 장기정비계약(LTMSA) 이행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전KPS는 UAE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UAE원전 정비사업계약'을 맺고 UAE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전KPS는 이번 UAE본부 신설을 통해 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조기 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지화 정책을 펼쳐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돕는다.

김범년 한전KPS 사장은 개소식에서 "UAE본부는 발전 기술 교류의 가교 기능을 수행하겠다"며 "UAE원전 정비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60년에 대한 5600MW UAE 바라카 원전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세일콜

### "새로운 가치 창출·사회적 책임 다할 것"

#### 김정욱 aT광주전남지역본부장



"광주·전남 농식품 산업 진흥을 위해 농업의 성장동력이 될 농수산물산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3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정욱(54) 본부장은 지역 농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한 유통조성사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김 신임 본부장은 "농수산물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광주전남본부로 거듭 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 성수고와 강원대학교를 졸업한 김 본부장은 1991년 aT에 입사한 뒤 식품안전처장, 경영지원처장, 서울경기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